

이영도 문학의 공적 욕망 구조

임지연*

차례

1. 서론
2. 공적 욕망의 의미와 내적 조건들
-내적 구조화와 문학적 제도화 과정
3. 공적 욕망과 시적 구조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영도가 이호우의 동생이라거나 청마의 연인이라거나 하는 문학이전의 사적인 평가방식, '규수시인'이라는 '여류'로서의 주변부적 평가방식과는 달리 그의 문학세계가 얼마나 공적인 것을 지향해갔고, 그것을 실현해갔는지를 추적하려고 하였다. 이영도의 문학적 출발은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영도의 삶에 깊숙이 내재된 공적인 것의 욕망은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자처하며,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유치환과의 서간집을 발간하면서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것으로 치환하여갔고, 그 기금을 기반으로 자신의 호를 딴 '정운문학상'을 제정하면서 자신을 제도화, 권력화 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문학적 권력의 물질적 조건으로 전이하였던 것도 자신을 민족과 국가 단위의 영역에서 스스로 부여한 역사적 임무를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여류문학인회 부회장, 한국시조작가 협회 부회장직을 맡았으며, 『현대시학』 추천인으로 활동하면서 문단의 대표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또한 그의 공적 욕망은 시조 텍스트에 나타나는 정치의식이나 역사의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적 욕망의 가장 밑바탕에 구조화된 “등불”의 이미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둠 밤을 밝혀 새날을 맞이하려는 계몽적 의지를 드러낸다. “등불”은 “진달래”로 변주되면서 4·19의 혁명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진 젊은 넋들로 확장된다. 이 역시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자인했던 이영도의 공적 의지를 드러낸다. 국토의 지리적 풍경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아니라, 국토애와 현실비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조국의 현실을 난세로 규정하면서 현실의 방향타를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사적 욕망, 공적 욕망, 미래의 유관순, 등불, 진달래, 계몽주의, 국토애, 이순신, 조국애

1. 서론

‘여류시조시인’으로서 이영도의 문학적 평가에는 유치환의 연인이라거나 이호우의 동생이라는 사적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던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유치환의 연인이라거나 이호우의 동생이라는 인식은 이영도의 문학적 평가를 다분히 사적인 여성적 감성으로 규정하는 무의식적인 축이었다. 그러나 이영도의 문학적 활동은 공적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가 자연물 “진달래”를 통해 4·19라는 현대사에서 가장 고양된 정치의식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영도의 시조 『진달래』는 매년 4월 19일에 수유리에서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자주 불리던 노래가사였다. 4·19, 분단, 전쟁, 조국애, 민주주의의식, 역사의식으로 이어지는 공적 관심은 그의 문학의 저류에 흐르고 있다. 때로 은폐되기도 하고 때로 표면화되었던 그의 공적 관심과 공적 욕망은 여류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유치환의 연인

이라는 문단내의 사적인 감정들 속에서 무화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영도의 공적 욕망과 그것의 문학적 실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적 방식의 평가가 전부였던 이영도 문학¹⁾의 다른 측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씌어졌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적 욕망이 이영도 문학세계의 저류이면서 근본구조일 수 있다. 여성적이며 서정적인 언어는 공적 욕망을 드러내려는 전략을 위해 배치된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 지점이다. 그만큼 공적 열망은 이영도의 문학세계를 강하게 지배했으면서 동시에 은폐되어 있다.

이영도 문학의 평가방식은 “요조하고 진지한 규중시조의 신국면”²⁾을 열어젖힌 규중시조시인, “여류 시조시인”³⁾ “애상의 시인”⁴⁾,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격조 높은 민족적 정서로 승화한 시조시인”⁵⁾ “여성특유의 맑고 경건한 계시주의와 한국적 전래의 기다림, 연연한 낭만”⁶⁾과 같이 한국적 여성성이라는 주어진 젠더에 충실한 의미로서의 ‘여류’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현실적이고 공적인 관심에 대한 평가는 후기 시의 한국면⁷⁾으로 평가받거나, 부분으로서의 “공적 감정”⁸⁾ 정도로만 이해되었

1) 이영도는 3권의 시조집과 7권의 수필집을 상재하였다. 시조시인으로서 뿐 아니라 수필가로서의 면모를 포함하여 이영도의 문학을 시조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조와 수필을 텍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이영도문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장순하, 『발전기』, 『신조』 5집, 1960, 49쪽. (임선목, 『시조동인지의 양상』, 단국대출판사, 1978, 58쪽, 재인용)

3) 이병기, 신석정 공저, 『명시조 감상』, 박영사, 1958, 117쪽.

4) 정완영, 『이영도, 그 시와 인생』, 『시문학』, 1976. 5, 59쪽.

5) 이숙례, 『한국 여성시조의 변모양상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07, 153쪽.

6) 박을수, 『한국시조문학전사』, 성문각, 1978, 421~426쪽.

7) 박을수, 위의 책, 421~426쪽.

김해성, 『한국현대시문학사』, 형설출판사, 1974, 572쪽.

8) 조남현, 『개인서정과 공적 감정의 넘나들기』,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이영도 시조집』, 태학사, 2000.

조남현의 평가는 주목할 만한데, 이영도의 시를 개인적 서정시와 애국애족시와 같

다. 그러므로 이영도의 시조는 대부분 규수시조시인, 여류시조시인이라는 여성성의 구획 안에서만 평가되어왔다. 그러한 평가방식은 최근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영도의 문학세계를 여전히 “세기적 열렬한 사랑을 한 분”⁹⁾ “청마를 향한 정운의 사랑”¹⁰⁾, “규수시인으로서의 자태”¹¹⁾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도는 여전히 문학사에서 문인들의 연애사건이라는 풍문으로서의 사적 평가방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영도의 문학적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류’의 내포와 외연을 구획하고 확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영도 문학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공적 욕망의 내적 구조는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는 수필이라는 고백의 형식을 빌려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은 시조텍스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4·19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풍경과 지리에 나타난 조국애, 충무공에 경도되어 드러나는 역사의식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호를 따서 제정한 ‘정운 문학상’ 제정과정, 여류문학인회 부회장과 시조작가협회 부회장의 지위, 70년대 우수한 시전문지였던 『현대시학』에서 시조 추천인으로서의 역할들은 모두 공적인 활동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자로써의 행복에 등심지를 돋았던 사람”¹²⁾이라는 일반적 평가는 이영도 문학세계를 부분적이거나 왜곡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은 공적 감정의 시로 유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의 ‘공적 감정’이라는 평가를 주목하면서 논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조남현의 평가는 개인적 서정시와 애국애족의 공적 감정의 시로 유별하면서도 개인적 서정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본고는 오히려 이영도의 문학에 근본적인 구조는 공적 욕망에 있다고 파악한다.

9) 전숙희, 표제문, 박옥금, 『내가 아는 이영도, 그 달빛같은』, 문학과 청년, 2001.

10) 최승범, 앞의 책, 표제문.

11) 이근배, 앞의 책, 표제문.

12) 김종, 『이영도론』, 『시조와 비평』, 1992. 봄, 33쪽.

이영도는 자신의 문학적 활동에 공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주도적으로 여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이영도 문학의 평가방식이 얼마나 사적인 풍문으로 점철된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영도의 시조와 수필이 사적인 여성적 언어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에까지 나아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영도 문학의 전모를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여류’라는 의미가 남성에 의해 구획되어진 대타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분히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제도화되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공적 욕망의 의미와 내적 조건들

-내적 구조화와 문학적 제도화 과정

공적(公的)인 것과 사적(私的)인 것에 대한 단 하나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公)’의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일관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私)’의 의미도 마찬가지다.¹³⁾ 모든 담론들이 그러하듯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특히 근대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교양과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 한정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성적 계약’의 논리를 수반하면서 형성¹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상식이 될 만큼 반복적으로 말해진 이 논리는 실제 현실 안에서는 권력의 방식으로 복잡하게 작동되고 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단지 차이의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위계의 방식과, 권력의 작동지점을 형성하

13) 레이몬드 고이스, 조승래 옮김, 『공적 선(善) 사적 선(善)』, 기파랑, 2010, 151쪽.

14)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31쪽.

는 방식이기도 하다.

아렌트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거처로서 지구와 관련된 삶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세계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공론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때 ‘공적’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 지각되는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세계가 공동의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과 구별된다. ‘공적’이란 말의 의미는 몇 개의 층위를 갖는다.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둘째, 특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common)인 것,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open)는 의미¹⁵⁾를 중층적으로 함의한다. 반면, ‘사적’이란 의미는 비국가적이고 비공통적이고 폐쇄적 영역을 가리킨다. 또한 공적 영역의 가능성은 세계의 “영속성”때문인데, 죽을 운명의 인간을 초월하는 불멸성에 대한 고려에서 기인한다. 반면, ‘사적’이라는 용어는 “박탈”과 관련되는데,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타인과의 관계 박탈, 영속성의 가능성에 대한 박탈을 의미한다. 박탈은 사적 영역의 특성이다.

정리하자면, 공적 영역은 타자관계, 공공성, 공통성, 국가, 영속성, (우월한)명예의 지위를 갖는다. 반면 사적 영역은 공적인 것이 박탈된 영역, 즉 비타자적 관계, 단독성, 비국가, 순간성, 무상성, 찬사없는 낮은 지위를 갖음으로써 구별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영역은 타자들과의 관계맺음에 의해 영속되는 가치들이 실현되는 장이고, 사적 영역은 타자적 관계의 박탈에 의해 생기는 세계의 소외를 말한다. 두 영역은 “과도처럼 끊임없이 뒤섞이는” 관계¹⁶⁾에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위계를 구성하며 권력적으로 작용한다.

15)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앞의 책, 18쪽.

16)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55~112쪽 참조.

이영도에게 가족과 관계된 것은 사적인 것,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가족은 공인된 타자들과의 관계(문학장)가 박탈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타자적 관계가 아니다. 가족은 또 다른 나들과의 관계, 동일성의 관계로 구조화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가족은 공적 욕망의 근원지이면서도 그 공적 열망이 좌절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적 영역이 가지는 영속성에 대한 욕구는 공적 우월성을 획득하게 한다. 근대인의 공적 영역에 대한 찬사는 애덤 스미스의 “공적 찬사”¹⁷⁾의 개념에서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시인의 경우 문학에 대한 공적 찬사는 돈에 의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물질적 보상과 대체 가능한 공적 찬사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는 “사용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은 다른 상품처럼 뚜렷한 교환가치로 평가되기 어렵다. 시인은 공적 찬사에 의해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공적 찬사’란 공적인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인 것은 사적인 것에 대해 우월한 가치로 작용하며, 권력의 잉여지대인 사적 영역에 비해 권력이 작동되는 지점을 형성 한다. 따라서 시인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적 찬사’만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문학 장에서 공적 찬사가 구현되는 대표적 방식이 문학상 제도이다. 문학상은 물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시인들에게 그것은 물질적 가치 그 이상의 보상과 같다.

‘공적 찬사’는 문학 장 내에서 여러 방식으로든 제도화될 수 있는데, 이영도에게는 정운문학상 제정이나 여류문학인회 부회장, <현대시학> 추천인과 같이 문학권력의 지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공적 찬사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속적 인간, “완전한 인간”¹⁸⁾

17) 위의 책, 110쪽.

18) 위의 책, 91쪽.

에 대한 근원적 욕구이기도 하다. 이영도의 문학적 욕망은 사적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표면화된 사적 영역과 은폐된 공적 영역이 넘나드는 밀물과 썰물 같은 것이었다.

이영도 자신에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분명한 것이었다. “유관순 이처럼 집안을 적지로 만들 아이”¹⁹⁾였던 이영도는 동경유학과 북경유학의 꿈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혼은 남편의 병간호로 젊음을 소모한 불행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문학생활은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영도에게 문학이란 사적인 공간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결별의 시기는 1945년 8·15라는 특정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를 배가한다. 남편의 죽음이 1945년 8월 10일이었고, 동인지 『죽순』에 시조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는 시기가 같은 해 12월이다. 이영도는 그래서 8·15해방을 “청상과부라는 슬픈 이름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힘과 정열을 불지피 주는 심신의 동력”²⁰⁾으로 받아들인다. 문학적 출발은 불행했던 가정생활과의 결별이면서 동시에 8·15와 같은 보다 공적인 의미로 동일화된다.

사적인 것의 대표적 공간은 가정이다. 가정은 타자적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나’들과의 동일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이란 인간의 조건에 필요충분한 것이었지만 성인 이영도에게 가정은 개인의 꿈을 박탈한 공간, 즉 공적 욕망의 좌절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보지 못하고 자란 서러운 상처는 손안에 구슬처럼 사랑해주시던 조부모님의 애정으로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토록 꿈꾸어 왔던 북경대학의 정치학과를 가지 못한 분노는 무

19) 이영도, 『인생의 길목에서』, 『나의 그리움은 오직 푸르고 깊은 것』, 중앙출판사, 1976, 145쪽.

20) 위의 글, 147쪽.

엇으로 대속할 수 없는 한으로 내 청춘시절을 덮어 내린 구름자락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만약 그 때의 원한바 대로 정치학 전공을 했던들 구구한 목숨을 오늘까지 부지 못하고 일제의 독수에 주륙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나라를 빼앗긴 가지 가지 통절을 무릅써야 했던 그 시절의 젊음으로써는 통곡으로도 다 못할 애석이 아닐 수 없다.²¹⁾

수필이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화자와 작가가 동일한 인물로 이해된다. 장르의 특성상 허구나 상상력이 강하게 발현되지 않으므로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진솔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작가의 자기고백이 강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적이고 진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필을 텍스트로 삼아 이영도 문학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일은 가능하다.

인용된 수필텍스트는 이영도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단서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글이다. 이영도가 어느 정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에 쓴 자서전적 고백형식의 글이다. 문학적 기원에 대한 상당한 정보²²⁾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영도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인용된 부분은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 언니 오빠가 학업을 중단했을 당시, 꿈꾸었던 동경 유학과 북경유학이 좌절된 시절의 이야기이다. “내가 그토록 꿈꾸어왔던 북경대학의 정치학과를 가지 못한 분노”라고 표현할 만큼 깊은 좌절이었다. 그러나 이 좌절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같은 글에서 일곱 살 때 집안에 들어온 도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리와 대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해결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일본 관리는 어린 이영도

21) 위의 글, 146쪽.

22) 이영도가 『죽순』(1945. 12)에 처음 발표한 시조 「제야」 역시 이 수필의 내용을 보지 않고는 읽어내기 어렵다. 이 수필은 이영도의 문학을 해석하기 위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에게 “저놈의 계집애 나중에 큰일을 저지르고 말겠는데, 고노야로”라는 말을 했고, 조부모 역시 “이 아이는 아예 객지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다가는 큰 일을 내고 말거야. 유관순이처럼 집안을 적지로 만들 아이거든”²³⁾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때 이영도는 그 말을 무슨 “예언”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큰일을 할 아이로 자인하게 된다. 자신은 북경대학 정치학과에 가서 일제에 항거하는 일을 해냈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꿈이 좌절된 채 삶을 살아가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운명”같은 것이었고, 이영도의 공적 욕망을 불태웠던 내적 동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영도의 별명이 “어머니 선생”²⁴⁾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선생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모성성을 계몽적 주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을 일컬어 “사랑하는 딸들의 정신은 결국 조국의 정신이요, 민족의 정신이요, 인류의 정신적 바탕”²⁵⁾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민족의 어머니로 호명한다. 젊은 딸들을 민족과 조국, 인류라는 공적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계몽적 역할을 자처하였던 셈이다.

이영도의 공적 욕망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청마 유치환과의 편지를 서간문으로 묶어 『사랑하였으므로 幸福하였네라』(중앙출판공사, 1967)를 출간하는 과정이다. 청마 사후 서간집을 내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부인이 살아있는데 애정 서간집을 낸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것²⁶⁾이었다. <문협>에서 제재를 가

23) 이영도, 앞의 글, 143쪽.

24) 이영도, 『비둘기 내리는 트랙』, 민조사, 1966, 178쪽.

25) 이영도, 『머나먼 사님의 길목』, 중앙출판공사, 1971, 213쪽.

26) 조현경, 『이영도 평전』, 영학출판사, 1984, 132~133쪽.

하려고 했을 만큼 이 사건은 문단안팎의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문단과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서간집을 내려는 이유를 이영도 스스로 밝힌 적은 없다. 대부분 청마 말년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콤플렉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난무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간문을 낸 이후 판권 소유를 청마 가족이 아니라 이영도가 소유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스트 셀러였던 책의 인세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딴 ‘정운 문학상’을 제정했다는 사실이다. 인세 일부인 고료는 모두 『현대시학』사에 넘겨져 시문학상의 기금에 쓰기로 하였고, 이후 인세는 『한국문학』에 의해서 ‘정운 문학상’의 밑거름이 되었다.²⁷⁾

청마와 이영도와의 사랑²⁸⁾이라는 사적 관계는 이영도에 의해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기금을 만들어 1971년 자신의 이름을 딴 ‘정운 문학상’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사적 애정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치환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관계는 파탄났겠지만, 이영도는 자신의 사적 관계를 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건으로 만들어나갔다. 자신의 호를 딴 문학상을 만들어 자신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문학 장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는 공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간집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1968년 비소설부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단행본으로 유래가 드문 2만 5천부의 판매부수를 올렸다. 인세는 모두 『현대시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영도는 『현대시학』의 추천인으로 선정된다. 1970년 10월호(2권 10호)에 박목월과 같이 추천

27) 위의 책, 133쪽.

28) 아렌트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사적 영역의 대표적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 드러나는 한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사랑의 무세계성이라고 하였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104쪽.

인으로 위촉되었고, 사망하기 직전인 1975년까지 추천인의 역할은 지속된다. 추천인은 등단이라는 문학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그 자체이다. 그것도 권력의 위력이 발휘되는 강력한 제도이다. 이는 당대 문학 장 내에서 여류의 지위로서는 상당한 권력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75년에는 한국시조작가 협회 부회장과 한국여류문학인회 부회장의 지위를 맡게 되고, 1976년 그의 장례식은 문인장으로 치루어졌다.

이처럼 이영도의 문학적 과정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명히 구획되면서도 공적인 것이 주도적으로 두 경계를 넘나드는 묘한 지점에 있다. 그것은 북경대학 정치학과라는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자신이 ‘미래의 유관순’임을 내면화하여 문학적 활동과 텍스트 생성과정에서 실현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것은 내면화된 공적 욕망의 힘에 있었다.

3. 공적 욕망과 시적 구조

3.1. ‘등불’의 정치성과 민주주의

이영도는 세권의 시조집, 『청저집』(문예사, 1954), 『석류』(중앙출판공사, 1968), 『언약』(중앙출판공사, 1976)을 상재하였다. 그의 조국애와 민주주의의식, 그리고 역사의의식은 한 시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전체를 관통하여 배치되어 있다. 조국애, 민주주의 의식, 역사 의식은 다분히 공적인 것의 핵심이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타자가 되어 (국가, 민족)공동체에 참여한다는 점에서일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이라는 동일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비타자적 관계를 파기하고 타자적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거대한 국가 공동체 안에 포섭될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양상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의식의 배면에 깔린 공적인 것의 관심은 한 번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영도에게 시조라는 장르의 선택은 선택적인 것처럼 보인다. 시조는 이미 주어진 최적의 문학 장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조의 형식이 담보해내는 서정장르의 특질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았다.²⁹⁾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호우의 영향이기도 하면서 유학에의 꿈이 좌절된 이후 들어온 가정교사의 유학적 영향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영도는 시조라는 글쓰기를 구원의 형식으로 받아들인다. “분하고 슬픈 동경이 무슨 병세처럼 앓려질 때 이 시조를 써온 것”이 시조 쓰기의 내적 발원이었고, 시집을 내는 일이란 “저의 안에 숨쉬는 온갖 애환을 일일이 들추어 남 앞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영도에게 시조쓰기는 자기구원의 한 방식이다.

“분하고 슬픈 동경”이란 “자꾸 서럽기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성품”³⁰⁾에서 기인한다. 분함, 슬픔, 서러움 같은 내면의 걱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영도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온갖 애환” 일 터인데, 그것은 자신이 ‘미래의 유관순’이라는 공적 인간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풍경에서 기원한다. 미래의 유관순과 같은 완전한 공적 인간으로서의 운명적 자기인식은 실제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삶의 풍파들을 “온갖 애환”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영도의 애환, 분함, 슬픔, 서러움 같은 감정들은 사적인 내면의 여류로서의 감성뿐 아니라, 공적인 열망이 함께 자아내는 감정들이다.

첫 시조집 『청저집』은 두드러지게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29) 이영도 시조의 형식을 분석하는 논문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음절수가 늘어나고, 시조의 형식적 울동미가 활력을 받으며, 행과 연의 시간적 배열과 같은 파격적 형식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신현필, 『이영도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7, 14~22쪽 참조) 그러나 시조 장르의 문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조 장르의 문법을 성실히 따르면서 서정시라는 상위의 장르적 특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0) 이영도, 『청저집』 서문, 문예, 1954, 4~5쪽.

봄기운의 청신함과 고향의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기원과 역사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등불’의 이미지는 고향의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발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계몽적이고 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득히 그리워라 내 고향 그 모습이
새로 바른 燈에 참기름 불을 켜고
祭床에 제물을 두고 밤 새기를 기다리나

별써 돌아보라 지나간 그 시절을
떡가래 썰으시며 늙으신 할머니이
눈썹 선 傳說을 풀어 이 밤 새우시더니

할머니 가오시고 새해는 돌아오네
새로운 이 山川에 빛이 한결 찬란하거라
어떠한 古談을 깨며 이 밤들을 새우노

-「除夜」부분(『청저집』)-

이영도의 등단작이기도 한 이 시조는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의 새날맞이 풍속을 그려내고 있다. 등단작이란 문학적 출발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문학적 기원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이영도에게 문학의 출발선이기도 하면서 문학의 기원을 해명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이 시조는 고향에 대한 회귀의식, 새날맞이 행사의 재현 그 이상이다. 이영도 문학의 의식구조와 공적 욕망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첫 작품에서부터 “등불”의 이미지는 선명한데, 이는 자신을 태우고 어둠을 비추어 마침내 세계를 깨끗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등불 이미지는 이후 조국애와 같은 공적 감정을 형상화하는 시

에서 계속 반복³¹⁾되면서 이영도 시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 고향집은 한국시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고향의식으로 서의 유토피아적 공간일 뿐 아니라, ‘미래의 유관순’이라는 공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보편적 의미의 고향의식이나 한국적 민속을 바탕으로 향수에 젖는 동심³²⁾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 시는 이영도의 공적 욕망이 발원되는 특이 지점을 보여준다.

밤이라는 시간성은 예비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된 시간이다. “밤이 깊”었고, 잠을 잊은 채 고향마을 전체는 분주하다. 시적 주체가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이 주는 유토피아적 정서가 아니라, “새날 맞이에 이밤 새우”는 “그 모습”이다.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향집 풍경은 어둡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밤이 어두워도 이미 구원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쁘게 어둠을 맞는다.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등불”이다. 그것도 그냥 “등불”이 아니라, “새로 바른 등불”이다. “등불”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일 것이다. 어둠을 밝히고 밤을 새워 준비하지 않으면 “새날”을 맞이할 수 없다. 그 이후에야 “새로운 이 산천에 빛이 한결 찬란”할 수 있다. 등불이 없으면 새날도 새로운 산천도 맞이할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흥겨운 축제의 시간들로 구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용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쓰인 수필 『해마다 이 밤을』에서 등불의 확장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除夜에’라는 부제가 달린 이 수필에서

31) 특히 「진달래-祖國에 부치는 詩-」에서 진달래를 조국애를 표상하는 “燃燈”으로 표현하고 있다.

32) 정영자, 『한국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200쪽.

“새로 바른 창조지를 번져 흐르던 등불의 정서”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그 아픈 세월 속에서도 우리들끼리만은 호젓하게 지켜 내리던 한 가닥의 정성이요 운치”³³⁾라고 부연된다. “등불”은 당시 주권을 잃었던 세월 속에서 지켜내야만 했던 정서들이라는 점에서 고향의 회귀정서나 당대의 풍속을 재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켜놓은 “등불”은 식민지하에서의 겨레의 등불이었다. 나아가 정치정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기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겨레의 가슴은 식어만 가는 단절의 강토, 이 서러운 초토(焦土)”³⁴⁾라는 당대적 현재성이 기입된다. 아직 시대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어두운 시기이고 그래서 겨레의 등불로 현재화되면서 의미는 더욱 공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때 “등불”은 이영도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인식했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등불”은 새날과 새 산천을 밝히려는 이영도 자신의 의지이자 운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등불은 등단작에서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메타포이다. 등불의 이미지는 『청저집』에서 뿐 아니라, 『석류』와 『언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변주된다. “등(불)”(「추야」, 「수혈」), “연등”(「부활절의 노래」) “불빛”(「등불」), “백자호롱”(「제야」), “초롱불”(「새벽 달」), “燒紙”(「갈대」), “붉은 열매”(「果」) “노을”(「산」), “꽃사태”(「진달래」)로 변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밝히다”(「유성」, 「수혈」, 「부활절의 노래」)의 동사적 시어도 많이 발견된다. 등불의 이미지는 개인을 희생하고 새날을 밝혀 맞이하기 위한 시적 주체의 근원적 자세로부터 4·19, 분단, 조국으로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영도가 서정적 자연물을 통해 4·19라는 정치적 사건을 고양된 정

33) 이영도, 「해마다 이 밤을」, 『나의 그리움은 오직 깊고 푸른 것』, 중앙출판공사, 1976, 43쪽.

34) 위의 글, 44쪽.

치의식과 고결한 민주주의로 표현한 시인이라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진달래”는 우리의 (서정)시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서정성을 불러오는 시적 자연물이다. 이영도는 “진달래”를 가지고 4·19라는 순결한 민주주의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눈이 부서”게 타오르듯 피어난 “진달래”는 “등불”의 변주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눈이 부서네 저기
난만히 맺등 마다

그 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恨이 터지듯
여울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辱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위라
물이 드는 이 山河

—「진달래」 전문(『석류』)

4·19는 당시에 “불완전한 민주혁명, 예기치 못한 블라디 투스데이”³⁵⁾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동시에 “제2의 감격”³⁶⁾이고 “완전한 해

방은 완전한 건설과 병행되어야 할 것”³⁷⁾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 열망과 의지를 추동하는 혁명적 열기였다. 이영도는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불완전한 혁명”이었음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지속적으로 완수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내면화하고 있다.

인용시는 “다시 4.19 날에”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960년이 지나고 4·19가 다시 돌아왔을 때 씌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영도에게 4·19는 일회적인 과거의 사건을 넘어 지속적으로 현재화되는 사건이다. 불완전한 민주혁명,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블라디 튜스데이”는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지켜져야 할 혁명적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눈이 부시네 저기”, “젊음 같은 꽃사태”라는 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완전한 혁명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에 대한 추모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그것이 매년 4월마다 피어나는 진달래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불사(不死)의 의미이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같은 꽃사태”가 현재적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반성에 있다. 시적 주체에게 지금 살아 있는 목숨은 “욕처럼 남은” 것이다.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한 채 살아남은 자의 목숨은 치욕이다. 그리고 시적 주체는 그 모든 좌절된 꿈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 4·19 때 죽어간 젊은 녀들과 4월마다 붉게 피는 진달래와 욕처럼 남은 목숨인 시적 주체는 동일한 의미구조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적 주체의 자기동일화의 의지에 의해 비롯된다. 결국 4·19의 좌절된 꿈은 여전히 시적 주체의 “지친 가슴”에 남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4·19의 꿈은 시적 주체의 꿈으로 전이된다. 이영도는 4·19의 역사적

35) 부완혁, 『혁명의 현단계와 금후』, 『사상계』, 1960. 6. 128쪽.

36) 위의 글, 128쪽.

37) 위의 글, 136쪽.

열망을 고스란히 자신의 문제로 넘겨받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영도의 좌절된 꿈은 북경대학 정치학과에 가는 것이었고, 자신은 “집안을 적지로 만들 아이”라는 어른들의 말을 예언처럼 받아들이면서, 일제에 항거하여 죽음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미래의 유관순’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공적 욕망은 4·19와 같은 의로운 민주주의적 혁명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못한 한스러움을 파토스로 폭발시키고 있다. 이때 “눈이 부시”게 피어난 “꽃사태”로서의 “진달래”는 앞서 살펴본 “등불”의 이미지와 연속선상에 있다. 붉은 피를 민주주의의 제단에 뿌리면서 어둔 역사를 밝히고 정화하는 “진달래”³⁸⁾의 이미지는 「제야」에서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밝힌 “새로 바른 등”과 같은 의미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인용시에서 서러운 “꿈”이란 4·19때 스러져간 젊은 녀들의 좌절된 열망에 자신의 꿈을 동일화³⁹⁾한다. “욕처럼 남은 목숨”은 당시에 죽어간 젊은 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개인을 넘어 어선 공적 층위에 대한 열망은 사적 개인의 영역에서 결여하고 있는 타자성, 세계성, 영속성, 국가주의라는 보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공적 열망은 국가와 민주주의 차원에 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조국애로서의 풍경과 민족제일주의

이영도는 “1950년대부터 산악운동에 가담한 여류시인”⁴⁰⁾이었다. 그의

38) 진달래는 4·19와 관련한 시들에서 반복적으로 차용된다. 「부활절의 노래」, 「진달래 - 조국에 부치는 시」 등.

39) 이영도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 같은 「은행나무」(『석류』)와 같은 작품에서는 “안으로 꿰이던 그 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좌절된 청춘의 내면을 “피”의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국토사랑은 이처럼 실제적으로 산에 오르고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신체적으로 체험한 것이었다. 명승지에 대한 시적 표현은 초기 시집 『청저집』에서부터 『석류』와 『언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토의 지리적 풍경이나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두드러진다. 국토의 풍경이나 유적지는 조국애와 역사 의식이 발현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지리적 상상력으로 그려지는 국토의 풍경은 조국애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이영도에게 풍경이란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그려낸 자연과 국토의 모습이라기보다, 그것에서 발현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2차 감정이다. 풍경은 풍경(風景)이 아니라 풍정(風情)⁴¹⁾에 가깝다.

3. 秋月潭에서

물은 반석을 넘고/ 바위는 물을 막아서고
 質을 달리하여/ 景을 絶한 水石의 멋
 갈라선/ 겨레를 두고/ 이 逆理를 생각한다

4. 沼道에서

炎熱은 논바닥에 타고/ 농부는 물을 퍼 올리고
 그 沼道를 먼지 날리며/ 줄을 이은 觀光車 Ep
 太古를/ 끊는 歡樂이/ 紅疫 같네 이 山村에

-「무주 구천동」 부분(『언약』)

연작의 형태로 쓰인 이 여행시는 단순히 여행의 풍경을 재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풍경이되 풍정이어서, 무

40) 조현경, 앞의 책, 138쪽.

41) 이영도, 「그리운 풍정(風情)들」, 『비둘기 내리는 뜨락』, 민조사, 1966, 179쪽.

주 구천동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통해 국토의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비판하려는 내적 풍경을 투사하고 있다. 이영도에게 풍경은 국토애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적 선택이다. 국토의 의미는 사랑을 깨닫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에게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상대를 아끼고 보호하는 심정의 본체”⁴²⁾이다. 국토에 대한 사랑은 마치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것처럼 국토에 자신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국토의 혈벗음은 내 가족의 혈벗음처럼 추위를 느끼고, 조국 산하의 적막함이 내집 정원의 쓸쓸함같이 느낄 애정”⁴³⁾이 바로 국토애이다. 그것은 “사랑의 눈으로 조국을 바라보”기이며, 이때 사랑은 “내 가족의 혈벗음처럼 추위를 느끼”는 가족적인 사랑과 동일시된다.

인용시는 이영도가 60년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8·15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어내면서 이영도의 현실인식은 분단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게 여행이란 국토애를 표현하기 위한 시적 장치이다. 가령, 임진강 여행기는 분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수필에서는 시조텍스트보다 예각적인 자신의 정치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판은 파토스가 아니라 에토스에 가깝다.

가령 분단에 대한 비판의식은 “우리 겨레의 허락도 없이,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삼팔선이란 것을 그어 강토와 겨레의 허리를 잘라놓은, 소위 강대국 저들의 소행이 억만년을 두고도 속죄받을 수 없는 죄악의 씨임을 이가 갈리도록 통감”⁴⁴⁾한다고 적고 있다. 이때 “강대국”이란 미국과 소련을 일컬을 텐데, 거기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영도는 친우익 성향의 정통 문협 쪽과 더 관련이 있었는데도, 그의 수필 텍스트에서는 반공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42) 이영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나의 그리움은 오직 깊고 푸른 것』, 255쪽.

43) 위의 글, 254쪽.

44) 이영도, 『임진강의 가을빛』, 『머나먼 사념의 길목』, 중앙출판공사, 1971, 49쪽.

당대 진보지식인들조차 강대국비판과 통일의식에는 반드시 반공과 반북 의식이 짝패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영도의 시각은 그것을 비껴쳐 있다. 여류로서 특이한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조국과 국토에 대한 공적 인식이 민족주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민족에 앞서지 않는다. 민족의 분단은 민족의 허물이라기보다 강대국의 수뇌에 있었다는 판단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인용시는 무주 구천동을 여행하면서 쓴 텍스트이다. 지리적 국토로서의 풍경이 어떻게 국토애로 변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한 자기 감정의 투사이다. 따라서 시적 주체는 ‘무주 구천동’이라는 아름다운 장소를 통해 조국의 현실을 읽어내려고 한다. 여행은 조국의 현실을 탐사하기 위한 공적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을 달리하는 경을 절한 수석의 멋”에서 시적 주체는 분단의 민족적 현실과 그것을 넘어서는 통일의 방법까지를 터득한다. “질을 달리하는” “수석”으로서의 민족적 분단현실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세력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逆理”를 터득함으로써 “질을 달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분단은 질적인 차이를 아름다움으로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시선은 이처럼 개인적 여행풍경을 분단현실로 변환함으로써 공적 시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민중적 현실을 드러내고 동시에 관광객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다. “炎熱”은 조국 농촌의 현실이며, 그 애끓는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 즉 “관광차 때”로서의 자신의 시선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끓는 歡樂”이고 “홍역 같”은 것이다. “국토의 험벗음을 내 가족의 험벗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끓는” 것이고 “홍역 같”은 질병이다. 개인적 시선은 사적인 여행을 공적인 국토애와 조국의 현실에 가닿는 공적 시선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영도의 공적 열망이 극점에 이르는 지점은 이순신의 시적 형상화에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⁴⁵⁾은 이순신이 유일한데, 그것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향토애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역사의식은 이순신에 의해 발원되어, 특히 신라의 유적지로 확장되고, 이후 국토의 풍경으로 공간적인 확장을 이룬다. 이순신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통영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연관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등불”의 이미지가 개인을 희생하고 새날을 밝혀 맞이하기 위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데, 등불의 발견은 바로 어린 날의 고향집에서였다. 주목할 것은 고향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잃어버린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삶과 민족이라는 공적 단위를 발견한 숭고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영여고 재직 시절 통영에 머물렀던 이영도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자신의 공적 삶이 발견되는 지점이었다. 통영이란 장소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난중일기와 ‘한산섬 달밝은 밤에’와 같은 시조를 쓸 줄 아는 교양인으로서의 이순신이라는 민족적 개인과 관련한 성지로 인식하였다.

엄연히 달빛아래 높이 앓은 저 다락은
 가오신 임 얼굴을 말없이 그리건만
 우렁찬 그 호령소리는 어니 곳에 들으라

적적한 바람소리 빈 다락을 울고 간다
 한 시적 그 영화를 내 물어 알라마는
 달 밝고 있지는 밤은 회포 한결 무거워라

—「洗兵館」부분(『청저집』)

45) 인물에 한해서는 이순신이 유일하지만, 공간으로 보자면 백제나 신라의 유적지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이다.

충무공에 대한 관심은 이영도가 통영여자고등학교 재직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무공의 유적지였던 ‘제승당(制勝堂)’은 명사나 지사들의 내왕이 빈번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들렀던 명사들의 글을 받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기록장의 이름을 ‘渺慕錄’이라 이름 짓고 백범의 친필과 담원의 시조, 지용의 시화 등을 받아두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잃어버렸다고 한다.⁴⁶⁾ 충무공에 대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민족적 성지이기 때문에 백범과 같은 민족적 지사들이 찾아다니고, 지용과 같은 명사들이 그곳을 들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충무공을 기념하는 이곳은 민족적 성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같은 시집에 『제승당』이라는 시조도 함께 실려 있다.

충무공에 대한 시조는 『청저집』에 실려 있다. 쓰인 시기를 추정해보면 그가 통영에 머물렀던 1946년 이후부터 『청저집』이 간행된 1954년 사이 일 것이다. 이 시기는 8·15해방과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격랑의 시대였다. 이때 이영도는 조국을 위태로운 시기로 인식했고, 그래서 충무공을 민족의 “등불”로 호명한다. 변혁기의 위기담론에는 언제나 역사물 특히 역사적 영웅들이 호명되다는 것은 일반적 방식이다. 이영도는 충무공을 시적으로 호명하면서 조국의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충무공은 “등불”의 이미지에 아주 잘 부합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국가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기희생,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실천들이야말로 민족의 등불이 아닐 수 없다. 공적 인물의 귀감인 이순신은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귀감이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이미지는 역사적 시기마다 새롭게 구성되어진 이미지였다. 왕조실록에 이순신이 집필한 『난중일기』가 삼입되면서 사적 일기가 공

46) 이영도, 「잃어진 묘모록」, 『비둘기 내리는 뜨락』, 182~183쪽.

적 기록으로 격상한 것, 신채호에 의해 사대주의의 노예성과 사적 개인의 이기심을 모두 청산한 신국민의 형상으로 규정된 것, 이광수에 와서 다시 “자기희생, 초월거적, 끝없는 충의”라는 신민의 도덕을 체현한 윤리적 국민⁴⁷⁾으로 변화되어왔다. 이후 박정희 시절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조성되는 위기의 담론으로 인해 이순신은 순사(殉死) 혹은 순국(殉國)의 이념, 되돌아가 통합되어야 할 전체로서의 민족, 대의를 향한 열사봉공의 자세 등은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민족적 이념으로 견고해진다.⁴⁸⁾ 따로 논의가 되어져야 하겠지만, 이 시가 씌어졌던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이 전통담론이 태동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영도만이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점유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전통담론과 민족담론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영도의 시는 존재할 것이다.⁴⁹⁾

위 인용시조는 견고한 민족적 이념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영도의 공적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해명해준다. 민족의 분단이라는 불행에 동참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민족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강대국에 겨냥하고, 좌우 이데올로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공적 가치가 민족이라는 대타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민족이었다. 그가 국가나 조국, 나라와 같은 국가담론을 형성할 때도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이라는

47) 차원현, 『정전과 동원』, 『1960~70년대 한국문학의 지배-저항 이념의 헤게모니』, 역락, 2007, 326쪽.

48) 위의 글, 327쪽 참조.

49) 이영도와 유치환은 1955년 4월호부터 61년 1월호까지 『현대문학』지를 서로 선물하면서 교환했다고 한다.(정영자, 앞의 책, 216쪽) 『현대문학』은 편집인 조연현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古傳에 대한 正當한 繼承”(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66, 180쪽)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주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도가 전통 장르인 시조를 썼다는 점, 유학의 분위기에서 교육받았다는 점, 『현대문학』의 전통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당대 전통담론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의 가치였다.

인용된 시조는 ‘세병관’이라는 이순신 유적지를 묘사하면서 이순신이 구현했던 “영화”를 현재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렁찬 그 호령소리는 어니 곳에 들으랴”, “한 시절 그 영화를 내 물어 알라미는”과 같은 구절은 현재를 난세로 규정하면서 민족적 등불의 역할을 실현했던 이순신의 현재적 의미를 되묻고 있다. 따라서 시적 주체가 “회포 한결 무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유적지 세병관을 관광객의 처지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아픈 조국”⁵⁰⁾을 위해 실천하는 민족적 개인단위로서의 공적 인간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영도의 민주주의 의식과 민족제일주의는 담론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적 영역 안에서 의미의 차이를 갖지 못했다. 단지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녔고, 그것을 통해 타자적 관계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민족/문학장이라는 거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공적 상상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영도는 분명 ‘여류’로서 문학적 삶을 살아나갔다. ‘여류’란 영원한 사인(私人)이었던 여성이 근대 교육제도의 수혜를 받아 공인(公人)으로 진출하게 되는 도상에서 나타난 역사적 개념⁵¹⁾이다. 이영도의 문학적 여정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여류’는 문학 장의 주변부였으며 여성이라는 사적 범주의 주체들로 인식되었다. 이영도는 특히 유치환의 연인, 또는 이호우의 동생이라는 사

50) 『묻어온 산정기(山情氣)』, 『비둘기 내리는 뜨락』, 248쪽.

51)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39쪽.

적인 관계망 속에서 문학이전의 평가방식과, ‘여성특유의 맑고 경건한 계시주의와 한국적 전래의 기다림’과 같은 고정된 여성성으로 문학사에서 배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영도가 문학이전의 사적인 평가방식, ‘여류’라는 주변부적 평가방식과는 달리 그의 문학세계가 얼마나 공적인 것을 지향해왔고, 그것을 실현해갔는지를 추적하려고 하였다. 이영도의 삶에 깊숙이 내재된 공적인 것의 욕망은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자처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치환과의 서간집을 발간하면서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것으로 치환하여갔고, 그 기금을 기반으로 자신의 호를 딴 ‘정운문학상’을 제정하면서 자신을 제도화, 권력화 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문학적 권력의 물질적 조건으로 전이하였던 것도 민족과 국가 단위의 영역에서 스스로 부여한 역사적 임무를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여류문학인회 부회장, 한국시조작가 협회 부회장 직을 맡았으며, 『현대시학』 추천인으로 활동하면서 문단의 대표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의 공적 욕망은 시조 텍스트에 나타나는 정치의식이나 역사의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적 욕망의 가장 밑바탕에 구조화된 “등불”의 이미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둔 밤을 밝혀 새날을 맞이하려는 계몽적 의지를 드러낸다. “등불”은 “진달래”로 변주되면서 4·19의 혁명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진 젊은 넋들로 확장된다. 이때 살아남은 자의 자기반성이 개입하면서 쓰러진 젊은 넋들과의 자기동일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자신을 ‘미래의 유관순’으로 자처했던 이영도의 공적 의지를 드러낸다. 국토의 지리적 풍경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아니라, 국토애와 현실비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조국의 현실을 난세로 규정하면서 현실의 방향타를 민족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이영도는 ‘규수시조시인’이라는 지극히 대타적인 의미의 여류로서의 평가와는 달리, 분명한 공적 욕망이 내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문단의 대표되기를 통해 스스로를 제도화 하였고, 수필과 시조 텍스트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실현하여갔다. 이영도의 문학적 삶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려 했던 주변화된 ‘여류’의 자기논리 안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여류’란 사적인 여성의 언어가 남성이라는 대타적 어법으로 구성된 제도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적 언어 안에서 구조화된 공적 욕망이 넘실거리는 은폐된 문학 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영도의 문학세계는 자신을 사적인 여성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타자성, 공공성, 영속성, 국가/민족주의를 확보하려는 공적 욕망을 은밀히 불태웠던 것이다.

문제는 이영도의 공적 욕망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에 있다. 영속적인 것에 대한 박탈, 타인과 서로 승인되는 관계의 박탈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욕망일 것이다. 그것은 여성적 결핍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에 대한 열망이었을 터인데, 그것이 문학 장내에서 통용되지는 않았다. 공적 열망은 이영도 문학세계의 분명한 내적 계기였고, 문학 텍스트에서 공공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여전히 “규수시인”으로 여류 안에 갇혀 있다. 더구나 청마와의 사적 관계, 이호우라는 거물 시조시인의 여동생이라는 풍문으로서의 평가에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 이영도의 공적 욕망이 중심/주변이라는 문학 장의 이중 구조 내부에 재안착되어 여류의 영역 안에서 무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또한 이영도의 공적 욕망의 방식은 자신을 민족의 어머니라는 계몽 주체로 치환하는데 있다. 자신의 여성성을 숭고한 민족의 어머니라는 모성적 지위로 드높였다. 공적 주체는 ‘완전한 인간’ 혹은 근대의 완전한 ‘시민’일 때 가능하다. 이영도는 민족의 개념을 문학적으로 차용하여 민족

공동체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 민족의 어머니로 자신을 호명하면서 국토애와 역사의식을 통해 민족 제일주의를 드러낸다. 이영도에게 최고의 선(善은) 민족이었다.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민족을 제일 가치로 하는 국가주의나 역사주의의 회로 안에 갇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 노력에는 여성의 존재론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젠더로서의 분명한 자의식은 희미했던 것 같다. '완전한 인간'에 대한 열망은 문학제도 내부와 국가/민족 내부에 안착하는 수준이었다. 공적 열망은 지속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문학 장의 위계구조는 이영도를 결코 문학의 제1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부완혁, 『혁명의 현단계와 금후』, 『사상계』, 1960. 6.
이영도, 『청저집』, 문예, 1954.
이영도, 『석류』, 중앙출판공사, 1968.
이영도, 『언약』, 중앙출판공사, 1976.
이영도, 『나의 그리움은 오직 푸르고 깊은 것』, 중앙출판사, 1976
이영도, 『비둘기 내리는 뜨락』, 민조사, 1966.
이영도, 『머나먼 사념의 길목』, 중앙출판공사, 1971.

2. 단행본 및 논문

- 김중, 『이영도론』, 『시조와 비평』, 1992. 봄, 33쪽.
김해성, 『한국현대시문학사』, 형설출판사, 1974, 572쪽.
레이몬드 고이스, 조승래 옮김, 『공적 선(善) 사적 선(善)』, 기파랑, 2010, 151쪽.
박옥금, 『내가 아는 이영도, 그 달빛같은』, 문학과 청년, 2001.
박을수, 『한국시조문학전사』, 성문각, 1978, 421~426쪽.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8~31쪽.
이병기, 신석정 공저, 『명시조 감상』, 박영사, 1958, 117쪽.
임선묵, 『시조동인지의 양상』, 단국대출판사, 1978, 58쪽.
정완영, 『이영도, 그 시와 인생』, 『시문학』, 1976. 5, 59쪽.
정영자, 『한국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200쪽.
조남현, 『개인서정과 공적 감정의 넘나들기』,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이영도 시조집』, 태학사, 2000.
조현경, 『이영도 평전』, 영학출판사, 1984, 132~138쪽.
차원현, 『정전과 동원』, 『1960~70년대 한국문학의 지배-저항 이념의 해계모니』, 역락, 2007, 326~327쪽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55~112쪽.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66, 180쪽.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39쪽.

신현필, 『이영도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7, 14~22쪽.

이숙례, 『한국 여성시조의 변모양상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07, 153쪽.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Desire Structure of Lee Young-do's Literature

Im Ji-yeon

Unlike general perceptions for Lee Young-do putting priority on private things over literature and a peripheral evaluation method on being a "female writer,"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into what how much her literature world was in pursuit of public things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The start of Lee's literature was escape from a private sphere. Lee Young-do's desire for public things, which was deeply incorporated into her life made her acknowledge that she herself was "the Ryu Gwan-soon of the future,"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incident of her childhood that was accepted as her destiny. As a result, since publishing a collection of letters with Ryu Chi-hwan, Lee Young-do started to replace a private relation with a public one. And based on the fund generated from the collection, she set up the "Jeong-un Literature Award, named after her pseudonym and made her institutionalized and a power. The transfer of her name to a material condition for literal power was also resulted from her efforts for fulfilling her historical duty granted by her herself in an ethnic and nation unit sphere.

Her public desires stands out in her political · historical awareness which has been revealed in a *Sijo* text. *Sijo* roughly translates to a traditional Korean lyric form consisting of three long lines. The image of the "Lamp" structured in the lowest bottom of a public desire reveals an enlightened will which lights a dark night and embraces a newly-dawned day while sacrificing oneself. The Lamp is transformed into "The Azaleas" which is symbolic of the young victimized souls who were fallen for 4·19 revolutionary spirit and democracy, which also shows a public will of Lee Young-do who self-acknowledged as the "Ryu Gwan-soon of the future." It

could be safely said that the geographical landscape of the national land is used to reveal the love for the national land and a criticism for reality, not as a landscape being objectively seen and her interest in Lee Sun-shin shows that she sought to find a rudder for reality in nationalism while defining the reality of her fatherland as a warlike age.

Key words : Private desire, public desire, Ryu Gwan-soon of the future, Lamp, Azalea, subject of enlightenment, love for national land, Lee Sun-shin and love for homeland.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